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연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타자를 이해하는 '마음의 소통' 필요

불신은 소통 부재 탓... 정서적 공감 이뤄야

자신의 경험 토대로 강의... '사람다움' 강조

소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 소통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기술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타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확장된다. 삶에 있어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의외로 타인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다.

“우리 삶은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측면이 있다. 개인의 내면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식의 소통과 더불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광주 라마다호텔 5층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나선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서적 교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교수는 신중식 시인의 시 '저것보셔요'(1976년작·문화과학지성사)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풀어내었다.

시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명동으로 염소를 팔러 나가는 한 사내를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특실한 염소들은 다 팔리고 사내의 손에는 비쩍 마른 염소들이 새끼줄에 연결돼 있다. 먼 발치에서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속내는 그리 간단치 않다.

“죽여주지도 못하는 생명을 누가 바라보나요. 현대 저것 보셔요... 눈이 똑똑 떨어지는.”(“저것보셔요”중에서)

시는 소통이 부재하는 극단적 상황을 환기한다. 어찌보면 새 주인을 만나 팔려가는 염소에게 눈은 축복일 수 있지만 ‘죽여주지도 못하는’ 염소에게 눈은 똑똑 떨어지는 눈물과 같다는 의미다.

“우리는 일상의 너무 많은 것들을 허투루 본다. 팔려나가지도 못하는 염소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리는 눈이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박 교수가 말하는 소통은 논리가 아닌 감성적 차원의 얘기다. 일상에

서 부딪치는 오해와 불신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서 연유한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갈등, 가정내의 남편과 아내의 불화, 학교의 왕따 문제 등은 타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소통은 살아가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인식의 문제와 직결된다. 삶을 영위시키는 인식의 틀은 다름 아닌 ‘사람다움의 골’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구체화하는가로 집약돼야 한다.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의 규범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첫번째의 소통 단계다.

박교수는 “그 첫번째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식 이면에 잠재해 있는 개별성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매개로 정서적 차원의 공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언젠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언제 가장 기쁘셨나고 물었다. 당연히 너희를 잘 그리고 공부 잘 할 때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예전에 당신이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눈을 땀는데, 유리창 저편에 아버지가 다 시든 장미 꽃 한송이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행복을 인지하는 때는 논리와 감성이 하나된 극적인 순간”이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려된 삶이 아닌 매달려 가는 상태”라고 역설한다. 관계성은 그 인식의 틀을 알고 공감하는 데서 의미있는 단계로 발전한다.

두 번째 단계인 마음의 소통은 그와 같은 상대의 ‘인식의 틀’을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느낌이라는 감성을 알아야 타자를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벗고 참모습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12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 특강에서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소통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리더의 덕목”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동규 교수는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나그네’로 유명한 고(故)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자 시인이다. 1939년 경북 월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

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2년 현대문학에 ‘카오스의 질서화작용’ 언어·성격·행동’으로 등단했으며 1984~2004년까지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현대소설기술’, ‘아버지와 아들’ 등이 있다.

지구촌 스피드 축제 F1, 15일 호주서 개막

한국대회 영암서 10월 4~6일 14라운드

애프 두번째... ‘월드챔피언’ 향방 가려질 수도

지구촌 최대 스피드 축제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오는 15일 호주대회를 시작으로 19회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코리아 그랑프리리는 지난해보다 1주일 앞당겨 오는 10월4일부터 사흘간 영암F1경주장에서 시즌 14라운드로 치러진다.

지난해 한국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를 달리던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우승을 통해 월드챔피언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시즌 우승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경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일정변화를 통한 높아진 대회 비중과 추월할 수 있는 DRS(Drag Reduction System) 존 추가, 타이어 변화 등 규정 변경으로 흥미가 더욱 높아진 전망이다.

또 싱가포르-한국-일본-인도-아부다비로 이어지는 5개국 ‘아시아 대회전’ 전체로 놓고 보면 9월 싱가포르 대회에 이어 한국 대회가 두 번째로 열리는 데다 1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때문에 한국에서 월드챔피언이 가릴 가능성도 크다.

올 시즌은 페텔의 3연패 도전이 가장 큰 관심사다.

F1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3등급(R·S·A)으로 운영된 입장권 등급을 좌석 선호도를 고려해 4등급(R·S·A·B)으로 세분화하고 조기예매 할인 판매를 통해 관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R·S등급은 기고가정책을 유지했고, A·B등급은 성장기적으로 마니아층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전일권보다 관람 수요가 많은 1일권으로 운영한다. 초·중·고교생들이 수확여행 코스로 관람할 수 있도록 1만~2만원대 급요일권도 판매한다. 입장권은 조기예매를 통해 최대 40% 안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시기별 조기할인(Early Bird) 시스템을 통해 3월 말까지 40%, 4월 말까지 30%, 5월 말까지 20%(금요일권 제외) 할인 혜택을 주고 15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2013년 F1 그랑프리 일정

개최지	대회기간
호주 멜버른	3.15 ~ 3.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22 ~ 3.24
중국 상하이	4.12 ~ 4.14
비레인 사키르	4.19 ~ 4.21
스페인 카탈루냐	5.10 ~ 5.12
모나코 몬테카를로	5.23 ~ 5.26
캐나다 몬트리올	6. 7 ~ 6. 9
영국 실버스톤	6.28 ~ 6.30
독일 뉴르부르크	7. 5 ~ 7. 7
헝가리 부다페스트	7.26 ~ 7.28
벨기에 스파	8.23 ~ 8.25
이탈리아 몬차	9. 6 ~ 9. 8
싱가포르	9.20 ~ 9.22
대한민국 영암	10. 4 ~ 10. 6
일본 스즈카	10.11 ~ 10.13
인도 뉴델리	10.25 ~ 10.27
아부다비(아스마리나)	11. 1 ~ 11. 3
미국 오스틴	11.15 ~ 11.17
브라질 상파울루	11.22 ~ 11.24

경우 우대자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입장권은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 G마켓(gmarket.co.kr)과 F1 공식누리집(www.koreangp.kr)을 통해 살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습주행시 공기저항감소장치 제한

올 F1 대회 달라진 점

올 F1 대회는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규정 변화가 적다. 올 시즌에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결정적인 규정 변화는 없다.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변화는 올해부터 예선과 연습 주행에서 공기저항감소장치(DRS·Drag Reduction

System)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뒷날개의 각도를 조절, 공기저항을 줄이고 원하는 시점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DRS는 지난 시즌까지 드라이버가 원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었으나 올해는 지정된 DRS 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는 연습 주행에서 자유로운 DRS 사용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DRS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랩타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0.5초에서 1초 정도로 예상된다.

타이어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피렐리 타이어는 지난해보다 무게가 증가했고 방향성이 높아져 테스트에서 빨라진 랩타임을 기록, 치열한 피트스탑(타이어 가는 시간) 전략과 출발상황 발생이 기대된다.

이밖에 경주 차의 최소 중량 증가, 노즈 상단 패널 추가, 더블 DRS 금지 등의 규정이 바뀌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지에 골프아카데미’ 광주 설립 무산

협약 후 토지매입 안해... 투자확약서 효력상실

‘신지에 골프아카데미’의 광주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프로골퍼 신지애와 광주시가 지난 2010년 9월 28일 체결한 ‘신지에 골프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투자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가 지난해 12월 말로 효력을 상실했다. 신지애측은 조만간 설립포기 공문을 광주시에 제출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시 신지애는 총 700억원을 투자해 상무지구 상무소각장 인근에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해 국내 골프 꿈나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프로골퍼 지망생 등을 육성하고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실, 에프프로치 연습장 등을 운영하기로 했었다.

신지에 골프아카데미 추진위원회

측은 이후 상무소각장 뒤편 시유지(5만㎡)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다.

신지에측은 수익성 측면에서 골프아카데미 예정 부지 안에 1만2000㎡ 규모의 스포츠전문매장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나, 시는 용도변경 특혜시비를 우려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신지에 골프아카데미 건립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신지애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광주시도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박진표기자lucky@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일·공휴일은 오전진료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진열판매!

1호점 슈니팡 총장로점 (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 14시

- 광주 우체국
- 2호점 메기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 14시
-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 7호점 광주 수완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사원모집

세계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 웨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면접까지(총면접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차 개별통보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